

Kim, Sonja M., and Ku, Robert Ji-Song, eds., *Future Yet to Come: Sociotechnical Imaginaries in Modern Kore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21. 256 pp.

김태호†

해외 대학에서 한국학(Korean studies) 강좌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2022년에는 크게 놀랍지 않은 이야기가 되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강좌의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게 되었는데, 개설된 강좌의 수 뿐 아니라 강의를 담당할 교수 인력과 다양한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재의 종류도 부족하다고 한다.

한편, 국내 대학에서는 유학생의 수도 증가일로에 있다. 학교와 전공분야에 따라 사정이 천차만별이기는 하지만, 특히 이공계 대학원은 “유학생 없으면 연구실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다. 다만 이들을 위한 영어 커리큘럼을 제대로 짜지 않은 학교들도 많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공계 전공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으나 정작 한국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을 알려주는 영어 교양 강좌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이 두 가지 익숙한 현상을 묶어 보면, 국내외를 막론하고 한국에 관심을 가진 성인 독자를 위한 외국어 콘텐츠가 다소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해외 대학의 한국학 커리큘럼은 전통 시대에 대해서는 문학과 역사 위주로, 근 현대에 대해서는 정치와 경제 위주로 편성되어 왔다. 여기에 최근 한류의 영향 등으로 문화 연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해외와 국내를 막론하고, 한국의 과학기술에 대해 알려주는 강좌는 찾아보기 어렵다. 해외에서 현대 한국을 대표하는 이미지가 새롭고 빠른 첨단기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해외 한국의 잡

---

† 전북대학교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 조교수, taehokim@jbnu.ac.kr

재적 수요 중 상당히 큰 몫은 답을 얻지 못한 채 계속 잠재해 있는 것이다. 이공계 유학생들도 자신들이 왜 한국까지 와서 한국에서 유래하지도 않은 현대 과학기술을 공부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한 채 실험실 생활에만 몰두하고 있다.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 과학기술이 중요하다는 말은, 전통과 근현대를 막론하고 많은 과학기술사 연구자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장해 왔다. 다만 이들의 주장이 과학기술사 분야의 자기 정당화 선언을 넘어 다른 분야의 청중에게 얼마나 널리 수용되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 선언을 넘어 실천적인 힘을 얻으려면 결국 구체적 사례를 통해 실증적인 근거를 쌓아 나가는 수밖에 없다. 특정한 시기와 국면의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에 그때 그곳의 과학기술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나아가 과학기술을 고려하지 않은 역사적 또는 철학적 해석은 어떤 한계를 드러내는지 보여줄 수 있을 때 “과학기술의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이 책은 과학기술(과 의학)이 한국학의 의미 있는 주제로 자리 잡아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열한 명의 저자와 편자들은 좁은 의미의 과학기술학을 넘어 한국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모였다. 특히 과거 비슷한 협력 프로젝트가 역사(주로 사회사, 문화사, 사상사) 쪽에 치중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문화연구 쪽의 합류가 눈에 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전에 없이 높아지는 최근 상황을 감안하면, 이러한 구성은 다양한 독자에게 이 책의 매력을 높여주는 요인이 된다.

다양한 주제들을 아우르기 위해 엮은이들이 택한 개념은, Sheila Jasanoff와 김상현이 *Dreamscapes of Modernity* (2015)에서 제시한 사회기술적 상상(sociotechnical imaginaries)이다. 이는 특정 과학기술이 현재 또는 미래에 대한 특정한 비전과 결합하여 사람들의 인식과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일컫는데, 이 책은 다양한 사례연구를 소개함으로써 (주로)근현대 한국 사회에서 여러 가지 사회기술적 상상들이 어떻게 경합하고 변천해 왔는지 보여주고 있다.

제1부 “Recollecting Sociotechnical Imaginaries”는 근대 이전과 근대로의 이행을 다룬다. 조선시대의 자연 이해의 고유한 양상(제1장),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의학의 위상(제2장), 그리고 전통적 사회기술적 상상이 붕괴한 뒤 자리 잡은 과학기술을 통한 부국강병이라는 새로운 상상이 항우석 사건을 거쳐 최근까지도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음(제3장)을 차례로 보여주고 있다.

제2부 “Restoring Minds and Bodies”는 전쟁과 복구, 고도성장과 정치적 억압, 자유화와 무한경쟁 등 굴곡진 현대사에서, 특히 몸과 마음에 대한 사회기술적 상상의 경합과 변천을 보여준다. 자살에 대한 의학적 및 사회적 해석(제4장), 공중보건과 냉전(제5장), 한국전쟁 후 복구와 재활의학(제6장), 줄기세포 기술의 상업화(제7장) 등을 통해 일제강점기부터 최근세에 이르기까지 한국 의료의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

제3부의 제목 “Prosthetic Arts”는 중의적이다. 제6장의 재활의학에서 등장하는 의수족의 이미지를 이어받는 동시에, 기술이 인간의 능력을 보완하고 새로운 표현의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면에서 제3부에서 채택하는 문화비평적 접근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사진 기술의 발전과 1950년대 리얼리즘 사진의 대두(제8장), 텔레비전과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제9장), “인류멸망보고서(Doomsday Book, 2012)” 등 한국 SF에 드러나는 사회기술적 상상(제10장) 등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의 발단은 2012년 Binghamton 대학에서 열렸던 워크샵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책이 완성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 한국의 과학기술에 대한 논의도 양과 질 모든 면에서 풍성해졌다. 그간 발전한 연구 성과를 반영한 만큼 깊이 있는 책으로 완성되었는데, 특히 Sonja Kim의 서문은 한국학에서 과학기술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호소력 있는 종설(綜說)로서 그 자체로 독립적인 가치를 지닌다.

이 책은 한국의 과학기술을 알고 싶어 하는, 또는 과학기술을 통해 한국을 알고 싶어 하는 잠재 수요를 현실적 수요로 바꾸어 내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 과학기술학(STS)의 접근을 중시하고 있지만, STS 책으로 반드시 좁혀 규정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독자층에게 호소할 수 있을 만큼 폭넓은 주제를 여러 방식으로 다루고 있다. 향후 해외 대학의 한국학 교재로, 또 국내 대학의 외국인 학생을 위한 입문서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